

〈玉樹記〉에 나타난 中國認識

조 광 국*

차 례

- | | |
|-----------------------|----------------|
| 1. 문제 제기 | 4. 中國人物에 대한 褒貶 |
| 2. 中國史實의 形象化 | 5. 마무리 |
| 3. 帝位繼承의 正統성과 中華의 世界觀 | |

1. 문제 제기

본고는 〈玉樹記〉의 作家意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설작품에는 작가의 생각이나 사상이 직접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담겨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설세계는 단순한 가공의 세계가 아니라 작가의 여러 의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세계이다. 작가의식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中國認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옥수기> 연구에 있어서 선편을 잡은 분은 김종철 교수이다. 그는 작가가 沈能淑(1782~1840)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으며, 나아가 이 작품의 作品構造와 世界觀에 대해 논의하였다.¹⁾ 이 연구는 폭넓음과 상세함을 두루 겸비한 성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1) 김종철, 玉樹記 研究-作品構造와 世界觀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1, 국문학연구회, 1985.

과를 남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 나타난 중국인식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물론 김종철 교수는 역사적 사실의 허구화, 중화사상 등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를 수용하되 <옥수기>에 나타난 중국 인식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고 본다.

중국인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까닭은 조선 지식인들, 특히 17세기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의 중국인식은 思想史에서 일정한 줄기를 형성하여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설의 경우에도 <옥루몽>에는 중국인식과 관련하여 王霸竝用の 政治理念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또한 <구운몽> <사씨남정기>에도 중국인식과 관련하여 김만중의 현실인식 논리가 형상화되어 있다.²⁾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본고의 논의는 작가론, 작품론에서 긴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첫째 中國史實에 대한 작가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明 英宗부터 憲宗代에 걸친 시기가 작품의 시간적 배경으로 되어 있다. 이와 결부하여 대내외적인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는 梁芳·繼曉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蒙古 즉 北虜와의 관계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소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중국 사실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帝位繼承의 정통성, 中華의 世界觀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셋째, 이 작품에는 司馬遷, 莊子, 荀子, 柳宗元 등 中國人物에 대한 褒貶이 이루어지는데, 인물 평가가 긍정적인 쪽으로 귀결된다. 이는 朱子 중심에서 탈피한 사고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작가의식이 조선후기 복잡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배태된 것임을 알아보기

김종철, 19세기 중반기 장편 영웅소설의 한 양상-옥수기, 옥루몽,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88~108면.

2)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王道·霸道 竝用の 정치이념 구현 양상,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9, 249~279면.

조광국, 17세기 후반 金萬重의 現實認識에 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1, 207~238면.

로 한다.

2. 中國史實의 形象化

<옥수기>의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은 明 憲宗의 在位 기간(1457~1464년) 동안이다. 국내 문제로서는 梁芳의 뇌물 사건, 繼曉의 영창사 사건과 二五의 반란으로 제시된다. 이 중에서 전자의 두 경우가 역사적 사실과 관련을 맺고 있고, 후자 부분은 허구적인 설정에 해당한다.

梁芳의 뇌물 사건, 繼曉의 영창사 사건의 경우 작가가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여 작중인물로 창출하는데, 그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① 역사적 인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 양방, 계효
- ② 역사적 인물을 변형하는 경우 : 임운
- ③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는 경우 : 가남, 화의실 등 긍정적 인물들(主人公 포함)

이 중에 역사적 사실을 수용한 ①②를 중심으로 살펴보자.³⁾ 먼저 ①의 경우다. 繼曉는 비술로써 梁芳에 붙어 승직을 맡았고 현종을 유혹하여 불사를 핑계로 영창사를 지어 수백 가구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하게 하였다. 작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계효로 형상화하고 있다.⁴⁾

각설 시"의 계효라 호는 요승이 잇스되 양방의게 붓또즌 용스호미 상이 편 벽되이 미드스 은즌 슈십만냥을 너야 서화문밧기 민가를 회철호고 영창스를 지으니 날마다 만금을 허비호미 빅성이 소여호야 원성이 즈" 호더라 학스 장 길 정괴 등이 상소호야 청컨디 요승의 머리를 버히즌 호거놀 상이 디로호스

3) 김종철, 玉樹記 研究, 73~78, 86~87면.

4) 繼曉 : 江夏僧 憲宗時 以秘術因梁芳進 授僧錄 ... 曰誘帝爲佛事 建大永昌寺於西市 逼徙民居數百家 ... 員外郎林俊請斬芳 繼曉以謝天下 ... 『明史』 下, pp.7884~7885.(위 논문, 74면 재인용).

4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말하는 자의 성명을 어병의 쓰고 금고학스 쓰지 아니하시니(<권1>, 27면)

梁芳은 매관매직을 일삼는 자였다.⁵⁾ 이러한 역사적 인물이 작품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②의 경우 임운을 보자. 임운은 역사적 인물 임준과 정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임준이 상소하여 계효를 내쳤으며, 정시는 양방을 탄핵하였다가 쫓겨나자 섬서 백성들이 눈물으로써 전송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의 행적이 작중인물 임운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임운은 상소하여 계효를 내쳤으며 나아가 그가 진주부에 유배되었을 때 백성들이 부모처럼 받들었고 운남으로 이배되었을 때 눈물으로써 전송하였다.⁶⁾ 이처럼 작가는 明 헌종 때 역사를 수용하면서, 그리고 二五의 반란과 같은 허구의 사건을 설정하면서 작품세계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한편 작품세계에서 국제관계는 蒙古와의 관계이다. 몽고와의 관계는 현재 憲宗代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주인공의 발언이나 작가의 직접서술을 통하여 英宗代 1449년의 土木之變부터 형상화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

먼저 土木之變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몽고의 국제관계를 역사적 사실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① 명과 오이라트(에센 통치)의 조공무역관계⁸⁾

5) 梁芳者 憲宗朝內侍也 貪黷諛佞 … 而諂萬員妃 日進美珠珍寶悅妃意 … 妖人 李孜省僧繼曉皆由芳進共爲姦利 取中旨授官 累數千人 名傳奉官 有白衣臘至太常卿者 陝西巡撫 鄭時論芳被黜 陝民哭送之 … 刑部員外郎 林俊以劾芳及繼曉下獄 … 『明史』 下, pp.7781~7782.(위 논문, 74면 재인용).

6) 김종철, 앞의 논문, 75면.

7) 진순신 지음, 권순만 외 4인 옮김, 『중국의 역사』 9, 한길사, 1995, 273~309면 참조.

8) 북방의 몽고족은 오이라트와 타타르로 분열해 있었지만, 타타르가 힘을 잃고 토곤과 그의 아들 에센이 이끄는 오이라트가 세력을 키워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당시 명과 오이라트는 朝貢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명에서는 주변국이 말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국으로부터 朝貢을 받고 恩賞을 베푸는 조공 관계를 맺었다. 평화를 보상하는 대금이지는 하나 조공에 비해 은상이 커서 명은 적자 상태를 면할 수 없었다. 이에 영종 정통 18년(1448년)에 명나라에서 은상의 규모를 축소해버렸다. 오이라트 부족의 사절이 처음에는 50명으로

- ② 조공 무역의 파탄 및 영종의 생포 : 土木之變(1449년)⁹⁾
- ③ 경종 즉위 이후 영종 복위(1457년)¹⁰⁾
- ④ 오이라트 쇠퇴, 타타르족(역마사인 통치) 홍왕, 소왕자(다얀칸)의 통치¹¹⁾

한정되어 있었다. 나중에는 그 규모가 매우 커져 영종 정통 18년(1448년)에는 2,500명이나 되었는데, 그것도 1,000명이나 인원수를 늘려 허위로 보고하였다. 당시 恩賞은 조공 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졌던 것이 관례였기에 오이라트 조공 사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위 보고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공의 품목이 말이었는데 수만 마리에서 수십만 마리로 늘었고 쓸모 없는 짐신은 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명나라로서는 적자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던 차에 실제의 인원수에만 은상을 내리고 말값도 오이라트측이 제시한 값의 5분의 1로 깎아버렸다.

- 9) 오이라트는 1449년에 明을 공격하였다. 왕진의 주청을 받아들인 영종은 50만 대군을 이끌고 북경을 출발하여 親征하였다. 왕진은 중도에서 오이라트군이 공격력이 강하다는 말을 듣고 퇴각하였는데, 宣府를 경유하다가 오이라트군의 추격을 받고 패전하고 말았다. 다시 퇴각하여 토목에 머물다가 오이라트에게 대패하고 만다. 왕진은 전투 중에 죽고, 영종은 사로잡히게 되었다.
- 10) 오이라트의 예센은 생포된 영종을 인질로 유리한 조약을 맺고자 하였다. 그러나 明에서는 영종의 동생, 경종이 즉위해버린다. 예센의 입장에서는 영종이 인질로서의 가치가 기대에 못 미쳤다. 또한 명나라와 조공-은사 관계를 재개하여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명나라에서는 꼭두각시 칸과 통하여 조공-은사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예센은 朝貢貿易에서 실익을 취하고자 1450년 영종을 송환하였으며, 곧이어 1451년 꼭두각시 칸을 죽이고 스스로 칸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예센은 景帝 경태 5년, 1454년 칸의 자리에 오른지 4년만에 살해되고 만다. 이로써 오이라트(北虜)는 다시 분열상태에 빠져들고 만다.
- 11) 오이라트족의 예센이 죽은 후 몽고에서는 타타르족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타타르 부족은 자주 明 북부 지역을 위협하였다. 『明史』 <憲宗本紀> 1480~1482년(성화16~18)에 걸쳐 여러 차례 亦思馬因을 제압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十六年春正月…保國公 朱永 爲平虜將軍…王越 提督軍務 汪直監軍 禦亦思馬因於延綏…二月…王越襲亦思馬因於威寧海子 破之…冬十二月…亦思馬因犯大同…朱永 汪直 王越帥京軍禦之 / 十七年…二月…亦思馬因犯宣府…五月…汪直監督軍務 王越爲平胡將軍 充總兵官 禦之 / 十八年…六月…亦思馬因犯延綏 汪直 王越調兵御敗之)(이상, 『明史』 <憲宗本紀>, 173~177면) 여기서 역사마인은 타타르 부족이 옹립한 칸을 가리킨다. 1483년(성화 19년)에는 역사마인의 후계자인 小王子가 여러 차례에 걸쳐 明을 침입하였다. (十九年…秋七月…迤北小王子犯大同 / 二十一年…十二月…是冬 小王子犯蘭州 莊浪 鎮番 涼州 / 二十二年…秋七月 小王子犯甘州 指揮姚英等戰死)(이상, 『明史』 <憲宗本紀>, 176~181면) 소왕자의 본디 이름은 바투멘제였으나 스스로 '다얀 칸(大元汗)'이라 불렀다. 憲宗 사후

- ⑤ 다얀 칸 이후 왕위 계승 여러 왕의 즉위, 알탄(엄답)의 즉위 및 통치¹²⁾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작품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어 있다.

- ㉠ 에센의 明 공격, 토목지변
- ㉡ 英宗의 복귀와 복위---北胡 공납
- ㉢ 憲宗의 北胡(=北虜) 공납 축소
- ㉣ 마선 엄답의 70만 공격(자형관 지방, 선부 지방)
- ㉤ 明의 15만 출정과 제압(가유진·유겸 형제)

위에서 ㉠에 대한 작가의 역사적 이해는 정확한 편이다.¹³⁾ 그런데 ㉡㉢㉣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그리고 史實과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史實에 따르면 英宗代에는 몽고족 중 오이라트족(에센 통치)과 국제관계를 유지하였고 憲宗代에는 오이라트족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들어선 타타르족과 국제관계를 맺었다. 그 이후 알탄(엄답)이 들어서기까지 이 기간은 영종 이후 경종 현종을

孝宗 때에도 다얀(大元)의 공격은 지속되었다.

- 12) 다얀 칸 이후 에 여러 차례 타타르의 왕위가 바뀌면서 알탄 칸이 즉위하였다. 알탄을 『明史』에서는 ‘엄답(俺答)’이라고 불렀다. 嘉靖(효종의 손자 世宗의 연호) 3년 1524년에는 大同 지방에서 兵變이 일어나 순무도어사 張文錦이 살해되었고 12년 1533년에는 총병 李瑾이 죽었다. 이들 반란 병사는 타타르 족의 알탄 칸에게 도망치기도 하였다. 이 알칸 칸은 가정 29년, 1550년 ‘庚戌의 변’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북경을 포위하여 명의 국운을 위태케 하였다.¹⁾ 그로부터 20년 뒤 알탄 칸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穆宗 3년 1570년에는 알탄 칸이 順義王으로 봉해졌으며, 타타르 부족이 동방보다는 서방 중앙아시아를 중시하면서 명나라의 북쪽 변경은 어느 정도 안정되기에 이르렀다.
- 13) 선시의 영종황제 토목지역의 씨쌀을 무릅써 계시더니 밋 도라와 복위호오시미히마다 마선의게 금뱃을 쥘시더니 현종황제 즉위호시무로부터 쥘는 비가 비전호야 감호지라 마선의 엄답이 노호야 이에 군스를 크게 드러 도적홀시 일변으로 곳 선부를 범호고 일변으로 존형관을 범호야 호를 칠십만이라 호고 성세 호디호거늘 상이 경호호오스 급히 각부 디신을 부르스 의논호실시 모다 말호되 기국공 가유진이 문부전지라 일즉이 요적을 평호야시니 그히 이 슴람을 보두면 만 번 다른 녀녀가 업스리라 호니(429~430면)

거처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에 해당한다. 작품에서는 英宗代와 憲宗代로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오이라트족-타타르족의 교체를 하나의 北虜(=北胡) 역사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몽고의 조공무역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 되어 北虜가 明을 침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공무역에 대한 불만은 대몽고 관계에서 자주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데, 나중에 조공무역이 회복된 것을 엄답이 항복하고 엄답의 두 딸 백룡·연연 공주가 가유점과 결연하는 것으로 그려낸다.¹⁴⁾ 여기에 더하여 北虜가 몽고의 후예인데, 간혹 “여진의 부락드리” 혹은 “팔부 군사”라고 하여 여진의 八路軍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작품세계는 국내적으로 양방·계효의 사건과 국제적으로는 북로와의 조공무역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에서 벗어나 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작가가 중국역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계관을 일정하게 담아내고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3. 帝位繼承의 正統性和 中華的 世界觀

먼저 대내외적 사건을 통하여 작가의 정치적 이념과 세계관을 추출해볼 수 있는데, 제위계승의 정통성과 중화적 세계관, 이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양방과 계효는 憲宗代 정치적 곤경, 사회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인물로서

14) 엄답이 홍보로 삼천수와 명마 오천필을 드리니 상이 또한 엄답을 위하여 집을 드스럭 잔치를 스승호스 만조를 명하야 모도게 하시니 엄답 언지 빅룡즈미의 궁실과 유장이며 시어 북풍이 성만호물 보고 디회 과망하야 금빅과 명마를 부마의게 만이 느화준 거시 수만이 되고 또 별노이 일흠잇는 말과 진쥬 보피를 파롱공쥬와와 밋 더장군과 더부인의게 드리거늘 상이 명호스 밧게 호시고 인호야 밧쓰로 삼일 더연을 빅설하야 즐기게 호오시며 경성의 빅일을 유숙하게 호고 도라그라 호시니 일노초춘 민년 일츠로 조회하게 호오시미 빅룡즈미가 나라를 버리고 온 심각이 있지 아니호더라(<권8> 11회, 567-568면)

“양방-제효-나옹-나춘-강희”로 이어지는 惡類群을 형성한다. 헌종은 충신 그룹의 諫言을 멀리하고 이들 惡類 집단을 신뢰한다. 이로 인해 가·화·임 3가문의 충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들의 곤경은 李五의 반란과 北虜의 침입으로 인한 국가 질서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惡人 강희가 충신 입운을 살해하고자 하는 것이 작품의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인제동용과 그에 따른 국가 존속의 중요성에 대한 심능숙의 의식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존속의 문제는 한편으로 제위계승의 문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오의 반란과 북로의 침입이 심층적, 비유적 차원에서 제위계승의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로의 침입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北虜의 침입은 憲宗代에 국한된 간략한 사건이 아니라 英宗代부터 이어내려온 것으로 작품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영종은 土木之變을 당하여 北虜 오이라트족의 에센에게 생포되며, 이에 明에서는 영종의 동생인 경종이 제위를 잇는다. 나중에 영종이 복위하게 되고 다시 그의 아들 헌종이 제위를 계승한다. 작품세계는 이러한 “영종-경종-영종-헌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하는 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을 보인다. 그 특이한 점이란 경종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거나 형상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종대에도 明과 北虜의 국제관계는 순조롭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영종의 복위와 헌종으로 곧장 이어내려가 明과 북로의 국제관계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식의 서술은 “영종-경종-영종-헌종”으로 이어지는 제위계통에서中间的 경종을 인정하지 않고 “영종-헌종”으로 이어지는 제위계통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경종에 관한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심지어 경종과 관련한 용어조차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것은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말하자면 경종에 대해서는 無統의 서술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너의 무리(北虜) 부득이하여 선황제를 봉환하되”라는 가유진의 말에는 영종의 제위 회복을 당연한 귀결로 보려는 서술의식이 배어 있다.

영종의 복위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영종이 제위를 놓

치게 된 책임, 즉 그 동안 경종이 제위를 잇게 된 책임이 영종에게도 있다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영종이 환관 왕진의 말을 듣고 오이라트를 침입하였다가 그만 전패하고 생포되고 말았던 것을 두고, 비록 간략하지만, “황제 왕진의게 그릇치신 비 되스 오십여만지중으로도 토목지익을 면하지 못하시른 이는 천고의 잇는 날이 아니라”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침내 영종은 곁에 신하를 잘못 두어 제위단절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고 작가는 영종의 제위단절 및 경종의 제위계승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종의 제위단절은 정당하지 않지만(중국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실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이 일회성을 넘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영종 복위 후 제위를 계승한 현종대의 혼란상을 구현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한 제위가 다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환종은 환관 양방과 요승 계효 등 惡類를 의지하고 충신들을 귀양보냄으로써 영종이 자초하였던 제위단절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다. 바야흐로 北虜가 침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惡類가 정치당하고 가·화·임 3가문이 동용되면서 북로의 침입이 제압되고 마침내 현종의 제위가 보전된다.

작가는 영종-환종의 제위계승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제위단절의 위험성에 대해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충신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현종도 영종 때처럼 제위계승이 순리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었으리라. 요컨대 제위계승에 있어서 부자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正統이고 그 이외의 것은 無統인 바, 제위계승에 있어서의 正統은 올바른 정치집단이 출현할 때 뒷받침된다는 것이 작가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정통성을 상실한 제위계승에 대한 환기는 한편으로 주변국에게 적용되기도 한다. 즉 외세의 중국 침입으로 중국의 제위가 정통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부당한 것이어서 영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변국은 중국 침략을 중지하고 中華의 문화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작가의 中華의 世界觀이 자리잡고 있다.

㉠ 견씨 미양 중화 풍속을 말하디 양인이 다 모화하는 마음이 있는지라

상락하야 곶오더 윈컨더 중화 괴남즈를 어더 혼 2지로 혼 스람을
섬기고즈 하더라(<권6>, 437면)

- ㉠ 디왕이 만일 변연이 귀순호오면 명위를 보전홀 거시오 또한 천즈의
스희로써 디왕의 스희를 스물지니 실상은 공주의 부마가 되느니라
안져서 영웅 스희를 어더때 인국의 빛나게 즈랑호는 거시 엇지 으
름답지 아니호리오 또 생각컨디 여진의 부락드리 만일 디왕을 중화
영웅으로 스희를 스문 줄 알면 반드시 서로 거느려 조희호고 감히
2비옴게 보지 못호리이다(<권6>, 458~459면)

위의 ㉠은 작가가 직접 개입하여 서술하는 대목이다. 土木之變으로 영종과 함께 생포되었던 귀인 견씨가 귀국하지 못하고 에센(北虜)에 홀로 남아 있으면서 엄담의 두 공주를 가르쳐 慕華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中華의 남성으로 혼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은 明에 항복한 양씨가 나중에 北虜 공격에 가담하여 北虜王 엄담에게 中華의 英雄 가유점으로 사위를 삼으라고 조언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가유진은 北虜를 치면서 “우리 선황제 세”로 온 은혜 고명을 네 나라의 드리오스 군신지분이 이미 경호야시며”라고 하여 明과 北虜의 관계를 君臣關係로 설정하고 있다. 北虜의 외침으로 중국의 제위계승은 일시 단절될 수 있으나 곧 회복되니, 주변국들은 쓸데없이 중국을 침범하지 말고 중원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화적 세계관은 작가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4. 中國人物에 대한 褒貶

한편 <옥수기>에서는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중국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임공자(본래 임소저)와 왕신은 도중에 만나 서로 친분을 맺는데, 그 과정에서 司馬遷, 莊子, 荀子, 柳宗元 4인에 대해 평가하기에 이른다. 처음에 이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제시되나 대화 과정을 통해 나중에 긍정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이들 인물에 대한 포폄은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임공자(임소저)와 왕신은 긍정적 인물들이며, 황제가 이들 결연에 적극 개입할 정도로 이들 결연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인물들이 비중이 있는 만큼 이들이 나눈 대화도 비중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들 대화에 작가의식이 용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司馬遷, 莊子, 荀子, 柳宗元에 내린 평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司馬遷의 경우이다. 임공자는 사마천과 그의 글이 함께 得時하였다고 평가한다. 이에 왕신은 태사공의 文才와 군자를 기다리는 태도를 인정하지만, 사마천이 이장군의 일로서 원통하게 곤경에 처하게 된 점을 들어 得時하였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이에 임공자가 재반박하자 왕신은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임공자가 사마천과 그 글이 得時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후세의 소귀짓는 스람드리 미양 스람은 굴히지 아니하며 써를 슬피지 못하고 진실노 죽근 벼슬과 약간 능함미 잇스면 모다 위하야 전을 세우고 혹 시 편벽되게 스랑하고 귀위하며 또 혹시 문견에 와전헌 비 되야 스람이 만일 구츠하고 글도 또한 잔널하야 사범이 임의 필하야시니 엇지 족히 칭도함미 잇스리오마는 티스의 문장에 이르러는 만일 성현옹호의 선비와 절협괴남의 누가 아닐진디 춤네치 못하느니 진느라 불이 이미 썬지고 한느라 불삿치 처음으로 이러느미 고금 영호의 전하고 전치 아니함미 다 티스의게 최망이 되야시니 이는 경히 문장이 뜻줄 어들 시절이라 ... 이런고로 찬술이 그 경더함을 어덧는 지라 합하야 삼천년 날로써 오십만언의 임의 결단하야시며 함물며 능한 성시를 당하야 더인호걸들의 날을 다시 귀로 듯고 눈으로 분변하느고로 그 글이 응결하고 슬퍼며 강기하야 친이 듯고 친이 보는 이와 다름이 업는지라 천지 지하의 글을 읊고 그 스람을 생각하면 스람으로 하야금 동식하지 아니하 리 업스리니 이써를 당하야 엇지 특별이 남즈를 이르리오 섭정을 전을 지으미 쥬영이 일 너즈로써 저즈 우의 통곡하야 죽는 것 보기를 터럭궤치 여기시며 창공의 일을 괴록홀진디 제영이 한 여으로써 쥬문의 글을 읊네 아비 더신 죽기를 청하야시니 한 실노릇 궤튼 목숨을 밧드려 만승의 위업을 거르느 것궤치 하야시니 이는 두 너즈의 형적이 고금의 드문 비나 비록 남즈라도 슈이 여기 지 못홀지라 ... 티스가 이궤튼 썬의 느셔 이궤튼 스람을 엇고 이궤튼 글을 지어시니 ㄹ히 이로되 천고의 괴이하게 만느 즈가 뉘러셔 티스두근 더흔 지 잇스리오 옛 스람이 이르되 몸을 죽여 어진 거슬 일운다 하야시니 쥬실의 화를 당함미 또한 썬을 엇지 일었다 하리오 니장군을 츠마 저버리지 못하야 이 지경의 이르미라 하거늘(<권8> 11회, 582~586면)

위의 내용은 작가의 『사기』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작중인물 임공자(임소저)가 부친 임공의 원수를 갚으려는 여성의 의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를 언급할 것도 없이 단순히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만 들면 될 텐데, 또는 『사기』를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 자체로만 그치면 될 텐데, 구태여 사마천과 『사기』가 得時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려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莊子, 荀子, 柳宗元에 대한 평판 대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사마천에 대한 평가 과정처럼 처음에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제시하자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마침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이들 3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과 긍정적인 평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莊子는 聖人을 업신여기고 말을 방탕히 하였으며 아내가 죽었을 때 동의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던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곧 장자는 옹호되기에 이른다.

빅언이 굴오디 니 그 스람을 취호는고로 더욱 그 글을 밋는 빅오니 장슈(장슈?)는 옛적 지극한 스람이라 난세의 느셔 시속 스람이 명니의 골몰호는 거슬 위위호야 우의호는 말을 지어시며 성인을 괴롱호며 만모호는 거시 아니라 뼈 타 의호야 홀노 호야금 성인을 겁피 아노라 홀과 굿트미오 고분호며 노리호문 정을 이괴지 못호야 이의 억제호기 어려우미 도로혀 달관호미 되야 스스로 뼈 위로호미니 그옥허 일오건디 그 뜻줄 부치고 정이 듯호은 즈는 엇지 장즈가 아니리오(<권8> 11회, 590면)

장자는 聖人을 기롱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당시 사람들이 名利에 골몰하던 추세를 우의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하여 옹호된다.

다음으로 荀子は 宋나라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순자는 다음과 같이 재평가받기에 이른다.

순즈는 비록 승악지설이 잇스나 이거산 기질디병이 잇는디 일흔 빅 되야 시니 본디 성품의 일운 빅 아니라 공지 굴오스디 성품은 서로 굿은 거시오 함습호은 서로 먼 거시라 호시니 악호는 디 잇스면 악호미 되고 서는 디 익회면

선하미 되는 거시라 일노 말미야마 말홀진더 엇지 마히 김히 죄주리오 저는 격동흔 비 잇서 정도의 일흔 비 된지라 이 씨의 처스가 빗기 의논하는 거술 당하니 혼갓 구설만 힘쓰고 그 근본은 구하지 아니하는고로 왕제와 군도며 신도와 부국의 병 등편을 지어시니 의논이 정다하고 경륜이 초동하야 이제 삼왕의 도에 넘지 아니하니 그 천하 국가의 종보하미 되는 거시 실상 손바닥 갓튼 지라 후리 명석과 선유 장보들이 왕〃이 그 말을 엄습하야 취하여다가 마마니 그 술법을 써시니 춘추전국으로부터 오므로 경술을 써 드스리고 그 법을 으든 지 그 말이 넓고 간절하며 그 법이 곤략하고 불나시니 누는 홀노 이로되 순주는 그 요령을 어뎛다 호노라(<권8> 11회, 590~592면)

위의 내용을 보건대 荀子の 性惡說을 인정하고 그의 정치적 사상이 “三王의 道”에 넘지 않았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제시되기에 이른다.

끝으로 柳宗元은 왕숙문의 신당에 참여하였다가 小人의 기룡을 받았으며 남황으로 귀양가게 되었던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곧 반박을 당하게 된다.

조후(유종원)의게 이르러는 혼갓 문장이 여덟 집의 종장이 될 뿐 아니라 그 뜻과 고운이 구하고즈 홀진더 또한 타인의게 미칠 비 아니라 촛훈다 이 씨를 당하야 하동 뉴씨의 문벌이 천하의 둘네고 조후의 문장이며 성명이 현동하니 누히 겨우 이십의 과거하미 나가 밋그로 직회더니 숙문(*왕숙문)의 무리들이 그 일흠을 듯고 소모하야 더부러 스편고즈 하되 조후 일즉이 혼 말노빠 스편을 출척하지 아니하고 또 일즉이 조정의 득죄하지 아니하야시니 ... 입조 오류삭의 숙문의 당을 무망흔 비 되야 필경이 너쳐시니 이는 다르미 아니라 그 문장 성명과 밋 문벌을 쓰리미라 지조를 미워하고 일흠을 투기하는 스편이 어는 씨의 업스리오마는 후세 스편이 씨 닐을 요랑하지 못하고 입을 순이하야 망녕되어 의논하니 또한 그 글을 읽고 그 스편을 아지 못하미 마하다 하리오 조후는 혼 번 남류의 브린 비 되미 허물을 스스로 김히 장기여 시속 지상의게 스편해야 더담하기의 이르러는 그 글이 조금도 결년하며 구추한 말숨이 엷고 밋 두 번 누마기의 당하야 유우석의 고을노 밋고기를 청하야시니 ... 다시 조정의 서지 아니코 남편으로 뉴주의 귀신되를 달게 여겨 속절업시 한 창녀로 하야금 처음 지은 디문으로 움기고 밋고께 홀 사뎀이라 유제는 그옥이 그 마음을 익련하고 그 닐을 슬허하미며 또한 시속 스편의 뉘워하고 투기하물 한하미 밋치 날로 하야금 당한 것갓 갓튼지라 그러하나 또 문장이 그 시와 갓고 그 시가 문장과 갓트니 진즉 어진 스편의 지조요 주부지 또한 굴으스디 시는 도류문경으로 조춘 왓다 하야시니 두리건더 한위(漢魏) 이러로 오며 역슈하는 그디가 업슬사 호노라(<권8> 11회, 592~594면)

14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위의 내용은 유종원(773~819)의 행적과 부합된다.¹⁵⁾ 그런데 작가는 유종원의 진실된 뜻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유종원의 뜻과 처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상, 司馬遷, 莊子, 莽子, 柳宗元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제시되다가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 인물은 공통적으로 朱子 중심의 시각에서 보면 수용되기 어려운 인물들이라는 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마천의 『史記』는 국가 흥망과 개인의 행적을 사실에 입각하여 그려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사마천이 자신이 균형당한 억울함을 史書에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정통 유가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물론 사마천이 훗날 정통 주자주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다. 작중인물 왕신이 임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사마천이 得時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사마천이 득시하지 못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열전을 통해 풀어냈다”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사마천은 사실에 입각하여 이는 일시적으로나마 부정적으로 본 것은, 유학자들의 사마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성향을 문학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자주의에 입각한 사상적 성향이 앞의 예시 문에도 나와 있거나 “순자가 宋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儒者라 할지라도 宋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순자는 王道와 霸道 논의에서 霸道を 운운할 때 거론되는 인물로서 정통 주자학자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유종원의 경우는 封建論郡縣論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는 封建論郡縣論 논의에서 봉건론을 반대하고 군현론을 주장한 학자, 혹은 봉건론의 틀 안에서 군현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학자였다.¹⁶⁾ 또한 그는 비록 반유교주의

15) 중국 당나라 시인. 자 子厚. 長安 출생. 柳州刺史로 부른다. 관직에 있을 때 韓愈·劉禹錫 등과 친교를 맺었다. 유우석과 함께 王叔文의 新政에 참획하였으나 실패하여 永州司馬로 귀양갔다가 柳州刺史로 좌천되었다. 韓愈와 함께 古文運動을 주도했는데, 한유와 달리 老莊 등 諸子學說을 수용하였다. 《天說》 《非國語》 《封建論》 등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6) 민두기, 중국의 전통적 정치상, 『중국근대사연구』, 일지사, 1977, 197~197, 199, 224면. / 박광용, 18~19세기 조선사회의 봉건제와 군현제 논의, 『한국문화』 22,

자는 아니었으나 전통적인 유가사상과는 거리가 있는 사상이었다.¹⁷⁾ 봉건론을 주된 사상으로 내세웠던 주자주의자들에게 균현론을 주장한 유종원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왕숙문의 신당에 합류하였다가 귀양가게 된 유종원의 행적은, 균현론을 펼친 것과 맞물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司馬遷·荀子·柳宗元 3인이 모두 儒者에 속하기는 하나, 이들은 朱子와는 구별되는 儒者들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莊子는 말할 것도 없이 老莊思想의 당사자로서 儒者들과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주자와는 더욱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런데 <옥수기>의 작가 심능숙은 이러한 인물들에게 덧씌워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를 보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 인물평과는 별도로 유종원의 文才를 칭찬하는 자리에서 그가 “漢魏 이래”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치켜세우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한위 이래로”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이 대화 중에서 나온 단편적인 구절이라서 작품적 비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漢唐 이래”가 아니라 “漢魏 이래”로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소홀히 처리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한위 이래”라는 구절이 작가의 漢魏 正統論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 역사학 논의에서 正統論이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정통론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漢 이후 魏를 正統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주자는 당시 漢 이후의 魏·吳를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僭國으로 보았다.¹⁸⁾ 이와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12, 194~198면.

17) 고병익, 유교사상에서의 진보관, 민두기(편),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85, 84면.

18) 北宋의 歐陽修는 周-秦-漢-魏-晉-北周-隋-唐-五代를 정통으로 보았으나, 南宋의 朱熹는 周-秦-漢-隋-唐을 정통으로 보았다. 이들 사이의 큰 차이점을 들어 보자면, 구양수가 魏를 정통으로 인정한 반면, 주희는 위를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僭國으로 보았다. 주희가 말하는 참국은 난리를 틈타 왕위를 찬탈하거나 지방에 웅거한 정권인데, 여기에는 후한대의 魏와 吳가 해당한다. 주희는 蜀(蜀漢)은 왕조가 창립되었을 때에는 정통을 얻었으나 이후에 잃고 말았다고 주장하였다. 주희의 『통감강목』이 나온 후부터 사가의 정통관은 거의가 그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북송은 魏를 중시하여 정통으로 보았다면 남송은 蜀을 정통으로

달리 작품에서는 漢의 삼국분열 이후 魏가 正統을 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蜀이 정통을 이은 것으로 보거나 혹은 아예 위오촉의 분열을 無統, 혹은 僭國으로 보았던 주자주의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옥수기>의 작가 심능숙은 주자 중심의 사상적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쥬부지 또한 굴으스디 시는 도류문경으로 조춘 왔다 하여시니”라는 구절에서 보듯 朱子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가는 제위계승에서 정통성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화적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자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작가는 주자주의적 성향과 탈주자주의적 성향을 아우르면서 작품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5. 마무리

이상, 본고는 <옥수기>를 대상으로 작가의 중국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세계는 국내적으로 梁芳의 너물 사건, 繼曉의 영창사 사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北虜와의 조공무역관계에 대해 다루면서 어느 정도 사실을 벗어나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형상화를 통해 제위계승의 정통성과 중화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편으로 司馬遷, 荀子, 柳宗元, 莊子 등의 중국 인물에 덧씌워져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이 제거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는 朱子主義의 성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脫朱子主義의 성향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작가는 주자주의 입장에서 탈주자주의적인 성향을 수용하여 양자를 병행하는 입장을 취하는 의식의 한 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가의 중국인식 태도는 19세기 조선후기 사상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중화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심능숙은 <送李士賓之燕序>에서 小中華意識을 보이고 있는데,¹⁹⁾ 김중철 교수가 지적했듯이 심능숙은 17세

보았다.(陳芳明(저), 이범학(역), 송대 정통론의 형성과 그 내용, 민두기(편)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85, 419~449면 참조)

기말부터 형성되었던 朝鮮中華主義의 연장선에서 19세기 초엽 청나라에 대하여 조선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세계에서도 “北虜”와 “北胡”를 번갈아 쓰고 있으면서 당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여진족”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대칭의식을 구현한 것이다.

한편 심승숙이 제위계승의 정통성과 중화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탈주자주의적 성향 지니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은 조선후기 사상사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표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동시대 소설 <우루몽>에서도 작가 남영로에 의해 王道·霸道 병용의 정치이념이 형상화되고 있었다.

더욱 당시 노론 내부에서도 주자주의를 표방하면서 주자 이외의 다른 儒者

- 19) 天下에 크게 볼 만한 것이 모두 천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또 크게 볼 만한 것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돌아볼 만한 것이 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즉 한 마을의 볼만한 곳은 어찌면 천하의 큼으로도 능히 대적치 못하는 것이다. 士賓이 이제 약관의 나이를 지나 詩酒를 좋아하여 선배들을 좇아 많이 노니더니 장차 燕京으로 가려한다. 그는 먼저 남으로 湖西 천리와 四郡을 다니고는 방황하다가는 마치 우연이 들른 듯이 淸州 華陽洞에 가서는 萬東廟를 배알하고 悲歌狂飲한 뒤 돌아와 행장을 차려 燕京에 가 天下의 경관을 보러가다가 나를 만나 작별을 했다. 내가 이르기를 그대는 천하의 경관을 구경하는 것을 연경행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또 遼陽, 西山 사이에서 燕의 호걸과 趙의 선비가 그대의 나라에는 볼 만한 것이 없는가 묻거든, 그대는 우리 동쪽 小中華의 勝觀은 다 보지 못하고 다만 두 곳을 보았는데, 四郡과 華陽이다 라고 대답하라. 그들이 또 四郡이 무엇을 이롭이냐고 묻거든 그대는 山水는 蘇州와 杭州에 가깝고 인물은 齊魯와 같다고 말하라. 또 그들이 華陽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묻거든 그대는 단지 그 고을에는 사당이 있는데 이름하여 萬東廟라고 한다 하고는 크게 말하여 아마도 지금 天下에서 크게 볼 만한 곳은 여기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하라. 그들이 장차 믿지 못하여 사당은 누구를 모신 것이냐고 묻거든 그대는 일어나 萬東廟는 明天子를 제사지내는 곳이라고 고하라.(天下之大觀非盡在於天下也 其所在不越乎一國 非盡在於一國也 顧其所在不出乎一鄉 然則一鄉之觀或以天下之大不能敵焉 士賓過弱冠髻已戟然喜詩勝酒多從遊尤人 行將隨副行人與適燕先其行南走湖西攀千餘里暨四郡而止 彷徨如有遇去 淸州之華陽 拜萬東廟 悲歌狂飲而返 然後 束裝之燕將以求 天下之觀 過余而別 余曰子毋求乎天下之觀爲行 且遼陽西山之間 燕之豪趙之士揖而問曰子之國不有觀乎 子曰東華勝觀吾未盡見 只見二四郡與華陽乎 彼將曰何謂四郡 子曰山水乎蘇杭近之 人物乎齊魯如之 彼又曰華陽何所有 子曰云鄉有廟 廟曰萬東因大言曰 竊恐今天下大觀無此比也 彼將顧化不信曰廟誰爲 子紀而告曰廟祀 明天子云爾)(〈送李士賓之燕序〉, 『後吾知可』 권5(김종철, 앞의 논문, 88면 재인용).

들의 사상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하자면 “순조대 이후 19세기 노론학계”의 “전통적인 노론주자학의 학문적 정통성이 붕괴해가는 과정”에 있었다.²⁰⁾ 김매순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바, 道家도 儒家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었다.²¹⁾ 노론 벌열의 세력권에 가까이에 있었던 심능숙이 이러한 의식의 일단을 보인 것이 그의 개성에서 비롯하는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실제 심능숙도 道仙에 침잠하기도 했고 道家를 儒家와 대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²³⁾

한편 이보다 더하여 노론 벌열 중 박지원·홍대용 같은 이는 中華意識과 華夷論을 극복하는 성향, 즉 일정하게 주자주의를 극복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을 정도였다.²⁴⁾ 물론 심능숙이 이들과 함께 사상적 길을 걷은 것은 아니지만 주자주의적 성향을 일정하게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탈주자주의적 성향을 지향한 인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본고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作家意識이란 작가의 세계관, 정치·사회사상, 문학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식의 복합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옥수기>에 나타난 중국인식을 토대로 작가의식을 밝히려고 했던 본고는 아주 좁은 범주의 논의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가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를 뒤집어볼 때 본고는 총괄적인 작가론 논의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주제어 : 中國認識, 中國史實(梁芳·繼曉, 北虜), 帝位繼承, 中華의 世界觀, 司馬遷·荀子·柳宗元·莊子, 漢魏 正統論, 朱子主義, 脫朱子主義

20)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113면.

21)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 200면.

22) 필자는 심능숙이 閩關의 일원이었다는 것과 <옥수기>가 閩關世界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논문을 거의 마무리하였다.(조광국, <옥수기>의 閩關의 성향-작품세계·향유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12(예정))

23) 김종철, 앞의 논문, 27~28면.

24) 조성을, 홍대용의 역사인식-華夷觀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9, 1995.6, 215~231면 참조. / 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8, 129~143면 참조.

참고문헌

- 고병익, 유교사상에서의 진보관, 민두기(편),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85, 84면.
-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 200면.
- 김종철, 玉樹記 研究-作品構造와 世界觀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1, 국문학연구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27~28면, 73~78면, 86~88면.
- 김종철, 19세기 중반기 장편 영웅소설의 한 양상-옥수기, 옥루몽, 옥미당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88~108면.
- 민두기, 중국의 전통적 정치상, 『중국근대사연구』, 일지사, 1977, 197~197면, 199면, 224면.
- 박광용, 18-19세기 조선사회의 봉건제와 군현제 논의, 『한국문화』 2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12, 194~198면
- 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8, 129~143면.
-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113면.
- 조성을, 홍대용의 역사인식-華夷觀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9, 1995.6, 215~231면.
- 조광국, 옥루몽에 나타난 王道·霸道 並用の 정치이념 구현 양상,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9, 249~279면.
- 조광국, 17세기 후반 金萬重의 現實認識에 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1, 207~238면.
- 陳芳明(저), 이범학(역), 송대 정통론의 형성과 그 내용, 민두기(편)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85, 419~449면.
- 진순신(지음), 권순만 외 4인(옮김), 『중국의 역사』 9, 한길사, 1995, 273~309면.

Abstract

A study on aspects Writer's thoughts about China in <Oksuki>

Jo, Gwang-Guk

This paper aims at reevaluating <Oksuki> which was Korean novel, written by Sim-Neongsuk(1782-1840). <Oksuki> compared with other Korean classical novels by the 19th century, had special aspects. Sim-Neongsuk incarnated his thoughts in <Oksuki>. Conclusion is as following.

Sim-Neongsuk received Chinese historic events and real persons as Yangbang(梁芳) and Kyehho(繼曉), and he received Mongol's attack. He accommodated the historic event just as it was and changes and do re-creation.

Sim-Neongsuk incarnated Orthodoxy of succession to the throne and Sino-centrism. This is thought of Orthodoxy Confucianism persons, above all, Juja(朱子). And he reevaluated positively about China persons as Samacheon, Yujongwon, Sunja, Jangja who were evaluated contradictorily by Juja.

Conclusively he was retaining contradictory ideas each other like these. This inclination was made in flowing of Korean complicated ideas in 19th century. At that time, orthodoxy Confucianism was dwindled and other ideologies were alternating orthodoxy Confucianism in Korea.